6. 문화관광국 소관

가. 경비별 세출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 경비별(세목)	'96 예산안		'95 예산액		증 △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
계	26,428,671	100	21,839,209	100	4,589,462	21.0
인 건 비 (100)	6,467,908	24.5	5,803,960	26.6	663,948	11.4
물 건 비 (200)	4,021,024	15.2	3,316,827	15.2	704,197	21.2
이 전 경 비 (300)	4,607,823	17.4	4,783,666	21.9	△175,843	△3.6
자 본 지 출 (400)	10,331,916	39.1	6,384,756	29.2	3,947,160	61.8
융자 · 출자금 (500)						
보 전 재 원 (600)						
내 부 거 래 (700)	1,000,000	3.8	1,550,000	7.1	△550,000	△35.4
예비비 및 기타 (800)						

○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성비

- 시 전 체 : 583,489,000천원
- 재 무 국 : 26,428,671천원 (4.5%)

나. 검토의견

○ 96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1.0%가 증가한 264억 2,860만원으로써 시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음 (219쪽)

- 참고로 문화관광국은 금년 6월 조직개편에 의해 내무국에서 문화예술과와 생활체육과, 교통관광국에서 관광과를 분리, 통합하여 현재 3개과를 관장하고 있음.

○ 경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 인건비에 64억 6,790만원(24.5%)과
- 물건비에 40억 2,100만원(15.2%)
- 그리고 이전경비에 46억 780만원(17.4%)과
- 자본지출에 103억 3,190만원(39.1%)
- 내부거래에 적립금으로 10억원(3.8%)이 계상되었음.

○ 경비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인건비에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1.4%인 6억 6,3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사편찬위원 2명과 시립예술단 181명, 연정국악원 상임단원 61명, 일용인부임 64명과 한밭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시립연정국악원, 시민회관의 일반직원 및 청원경찰의 봉급 및 수당의 처우개선으로 인상요인이 발생된 것임. (219 ~ 330쪽)

(둘째) 물건비는 금년도 일반운영비와 여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등으로써 금년대비 7억 4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와

관서당경비등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되었고, 여비도 관서당경비와 일반운영비등에서 1억 1,850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 증액편성된 부분은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와 부서운영비에서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으며,

- 복리후생비에서는 교통비신설, 명절휴가비 인상분에서 증액된데 기인된 것임 .

- 연구개발비에는 산서지구 도요지개발 발굴조사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고, 관광전산망용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대비 6,9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셋째) 이전경비는 보상금, 민간이전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으로써 금년대비 1억 7,58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보상금에서는 금년보다 2,415만원이 감소됐는데 문화예술과 문화상 시상금 및 시립예술단 운영비에 1,260만원이 감액된 2억 1,730만원이 계상되었고, 생활체육과에서도 대회참가 선수단 보상금에서 1,240만원이 감소된 1,420만원이 계상된데 따른 것임.

- 만간이전비에서는 문화관광국 소관이 시전체 민간이전비의 대다수를 관장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금년도 대비 5억 3,230만원이

  감소된 36억 1,240만원으로 이중 국비지원이 문화예술과에 180만원, 생활체육과에 4억 8백만원이 포함되었으며, 각종 예술,

체육행사에 40여개 항목중에서는 대부분 시민, 단체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일부행사에 있어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민간이전 경상비 계상에 있어서 지원사업의 효과를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해야 될 단계라고 판단됨.

-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는 금년도 대비 1억 5,6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내년도 자치단체 경상보조비에 지방문화원 육성비 8,000만원과 향토자료조사 지원비 2,000만원이 국비로 신규 지원된데 따른 것임. (236쪽)

(넷째) 자본지출에는 금년 당초 예산대비 39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음.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 자산취득비에서는 5,810만원이 감액된 3억 2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실과별 물품 및 도서구입비를 계상한 것이며,

- 민간자본 이전비에서는, 유림회관 건립비로 5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나 아직 건립장소등 건립계획이 미수립되어 내년도 건립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244쪽)

-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에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7억 3,160만원이 증액된 10억 4,88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서구 도마동에 건립되는 공공도서관 지원비에 국비로 3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237쪽),

'96년도 동네체육시설 12개소에 소요되는 1억 7,8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54쪽)

또한 문화회관 건립비 보조비에 시비 50%인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유림회관 건립비와 마찬가지로 건립장소 선정등 건립계획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건립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봄. (237쪽)

- 다음은 자본지출의 시설비(401목)에서 금년 당초 예산보다 23억 3,700만원이 감소된 77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한밭문예회관 건립비에 21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동회관은 건립비 50억원에서 30억원이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내년 2월중에 착공될 동 사업은 국비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향후 막대한 사업비 충당에 있어서 시재정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240쪽)

- 다음은 남간정사 사적공원 조성사업비등에 11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고(245쪽)

- 남간정사 사적공원 조성에 따른 94, 95년도 채무부담 상환금으로 18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46쪽)

- 또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시설비에는 야구장의 인조잔디 식재사업외 11개 보수공사로 금년대비 17억 1,500만원이 증액된 21억

  8,470만원이 계상된바, 특히 야구장 인조잔디 식재사업은 사업비가 13억원으로 대구광역시의 예를 보더라도 한화이글스 프로야

  구단에서 일부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되었어야 하는 부분으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봄. (315쪽)

(끝으로) 내부거래비에서는 적립금(705목)에서 체육진흥기금조성을 목적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동 기금조성조례는 제정안이

금번 정기회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되었던 안건으로서 동기금조성계획은 96~99년까지는 매년 10억원씩, 2000년에는 3억원을

적립하여 43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가용재원이 빈약한 시재정형편을 감안하면 다소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봄. (254쪽)